



자궁근종! 무조건 수술하지 않습니다

장 호 선 그레이스병원 원장

자궁근종 고주파 용해술

자궁근종은 30~40대 젊은 여자의 25%에게서 자궁에 많이 생기는 흔한 혹으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생기거나 커진다. 자궁근

종은 대부분 산부인과 정기검진으로 우연히 발견된다. 근종의 정확한 원인은 간편한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대부분 가능하다.

자궁선근종은 자궁근종과는 생기는 원인이 다르며 초음파로도 알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자궁근종으로 오인되기 쉽다. 최근 들어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으로



근래에 시행할 수 있는 자궁근종 용해술인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의 장점은 전신 마취에 따르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흉터가 남지 않고 출혈이 없어 수혈의 가능성이 없으며 기존 레이저보다 유착 발생률이 매우 적다.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까지도 고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근종에 의한 증상으로는 월경통, 월경 과다, 그에 따른 빈혈, 월경 장애, 현기증, 허리 통증, 빈뇨, 배뇨 장애, 불임 등이 생길 수 있다. 자궁근종에 대해 지금까지의 치료방법으로는 자궁 적출술, 자궁근종 절제술 등이 있는데, 이 경우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 4~5일 동안 입원이 필요하고 출혈, 수혈, 수술 후 유착, 마취에 대한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가임력의 보존을 위해 자궁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하는 젊은 여성은 이러한 수술 치료를 더욱 꺼리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에너지원을 열에너지로 변화시켜 자궁근종을 괴사, 용해하는 자궁근종 용해술이 소개되었다. 근래에 시행할 수 있는 자궁근종 용해술인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의 장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신 마취에 따르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흉터가 남지 않고 출혈이 없어 수혈의 가능성이 없으며 기존 레이저보다 유착 발생률이 매우 적다. 또한,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수술 치료 방법밖에 없는 자궁 선근종까지 치료할 수 있고 만약 재발될 경우 재시술도 가능하다.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의 원리는 자궁근종에 고주



파를 발생하는 탐침을 집어넣어 탐침 끝에서 열생성을 시켜 근종 조직을 괴사시키고 근종 성장에 필요한 혈관을 응고시켜 영양 공급을 막고 근종 조직의 성장수용체를 없애

근종이 점점 줄어들고 더 작아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근종으로 인한 증상들 즉 월경 불순, 월경 과다, 빈뇨, 배뇨 장애, 월경통 등이 95% 이상 없어지게 된다.

특히 가임력을 보존해야 하는 젊은 여성에서 자궁근종으로 인해 자궁을 제거하면 심리적 허탈감, 상실감 등 과도한 스트레스에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고주파 자궁용해술을 하게 되면 기존 수술에 비해 합병증을 적게 하고 자궁을 보존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폐경 전후의 여성에서도 역시 이 고주파 자궁용해술을 시도할 수 있고 자궁근종이 자궁절제를 하여야 할 정도로 크지 않을 때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효과도 좋아 더욱 적극 추천할 수 있다.